

통합 시청자 데이터로 본 지상파 경쟁력



» 글 민경숙 | TNMS 대표
매스커뮤니케이션 박사
min.gs@tnms.tv

tvN은 2006년 10월 개국했고, JTBC를 비롯한 종편들은 지난 2011년 12월 개국했다. tvN은 방송 12주년을 맞이했고, 종편들은 12월 개국 7년을 맞이한다. 최근 데이터는 이들의 경쟁력 부상으로 인한 지상파 경쟁력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 TNMS 본방 시청률 데이터와 재방송과 VOD 시청자를 모두 합한 통합 시청자 데이터(TTA: TV Total Audience)를 통해 살펴보기로 하자.

■ 본방에서 지상파 경쟁력 우월

TNMS가 전국 3200가구 약 9천명을 대상으로 가장 최근 2018년 9월 1일부터 10월 23일까지 개인(4세 이상) 본방 시청률 순위 10위를 집계한 결과, KBS1이 176번으로 가장 많이 10위 안에 들어갔고, 그 다음이 SBS 137번, KBS2 105번, MBC 87번으로 각각 본방 시청률 10위 안에 진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지상파 중에서는 tvN이 23번 본방송 10위 안에 진입했고, JTBC와 OCN이 각각 1번씩 진입했다.

지상파 중에 가장 낮은 경쟁력을 보이고 있는 MBC와 비지상파 중에서 가장 높은 경쟁력을 보이고 있는 tvN과의 차이는 87대23 차이를 보였다. 또 지상파 중에서 가장 높은 본방 경쟁력을 보이고 있는 KBS1과 비지상파 중에서 가장 높은 경쟁력을 보이고 있는 tvN과의 차이는 176대23 이었다. 집계 결과, 아직도 본방에서는 지상파의 경쟁력이 비지상파보다 상당히 우월함을 알 수 있다.

〈표 1〉 일별 시청률 순위 10위와 TTA 10위 진입 횟수 채널별 총합(2018.9.1~10.23)

(데이터 : TNMS)

채널	본방	TTA
KBS1	176	87
KBS2	105	119
MBC	87	106
SBS	137	114
JTBC	1	24
tvN	23	47
OCN	1	18
TV조선	0	4
채널A	0	4
MBN	0	0
MBC every1	0	7

■ 비지상파 약진하나 아직까지는 지상파가 대세

하지만 본방송뿐만 아니라 재방송과 VOD를 모두 합한 통합 시청자 데이터로 살펴보면 지상파와 비지상파의 간격이 본방송 때보다 훨씬 많이 줄어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본방송 기준으로 지상파에서 가장 경쟁력이 높은 채널과 비지상파 중에서 가장 경쟁력이 높은 채널간의 10위 안에 진입 횟수 차이는 KBS1:tvN = 176:23 이었는데 통합 시청자 데이터에서는 KBS2:tvN = 119:47 로 그 편차가 본방송 153번에서, 통합 시청자 데이터에서는 73번으로 줄어들었다. 본방송에 비해서 재방송과 VOD 다시보기를 모두 합한 통합 시청자 데이터에서는 비지상파의 약진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또 다른 각도로 분석해 보면 통합 시청자 데이터에서도 지상파의 경쟁력이 비지상파의 약진에도 불구하고 나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2018년 9월 1일부터 10월 23일까지 본방송을 한 프로그램들의 통합 시청자 순위를 구한 결과, 10위 안에 들어간 비지상파 채널(7개 채널:tvN, 종편4사, OCN, MBC 에브리원)들의 진입 횟수를 모두 합한 값은 KBS2, SBS, MBC 각각의 지상파 채널들이 10위 안에 진입한 횟수보다 아직까지 적음을 알 수 있다.

2018년 9월 1일부터 10월 23일까지 비지상파 채널(7개 채널) 본방송 중 통합 시청자 데이터 순위 10위 안에 들어간 것은 총 104번이었던 반면, KBS2, SBS, MBC는 각각 119, 114, 106번 10위 안에 들어갔다. 비지상파 7개 채널들의 10위 안의 진입 횟수를 모두 합해도 지상파 채널 KBS2, SBS, MBC 각각의 진입 횟수보다 작다는 뜻이다.

tvN과 JTBC 등 비지상파 채널들이 통합 시청자 데이터에서는 본방송보다 상당히 높은 경쟁력을 보이고 있고 예전과 달리 지상파 경쟁력을 위협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지상파의 대세가 본방에서 뿐만 아니라 통합 시청자 데이터에서도 이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K A A**

